

동진세미켄, 영업실적 회복 멀었다!

굿모닝신한증권, LCD용 감광제 매출 저조로 ... 목표주가 하향조정

굿모닝신한증권은 12월27일 동진세미켄에 대해 업황회복이 지연돼 2006년과 2007년 영업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1950원에서 178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재열 애널리스트는 “4/4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0.8% 감소한 55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원화환율 하락(수출비중 90.9%)과 지속적인 단가 하락으로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액의 72.8%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재료 부문에서 LG필립스LCD에 대한 LCD용 감광제 매출이 예상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동진세미켄의 2006년과 2007년 매출액 전망을 각각 3.1%, 6.4% 하향 조정했다.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2006년에는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7년 영업이익률 역시 당초 전망보다 1.1%p 낮아진 0.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7>